



WORLD
HERITAGE

성 미하엘리스 교회 힐데스하임

미하엘리스 교회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신교-루터교 교구인 성 미하엘리스 교회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뻐하며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찾고자 하는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하시길 기원합니다! 차분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분위기를 즐기시고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만남을 준비해 보세요.

성 미하엘리스 교회는 1000년 동안 수도자들과 교인들의 기도로 가득한 곳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위해 행해진 감사와 애도, 간청과 희망의 말들이 오늘날까지 교회 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해 두시면서 교회 내의 정적 속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머무는 동안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구회 임원 및 교구 목사 집무실
힐데스하임 성 미하엘리스 교회

역사

993년부터 1022년까지 힐데스하임의 주교였던 Bernward는 996년에 미하엘리스 언덕 위에 베네딕트 수도원을 세웠다. Otto 3세 황제는 자신의 교육자였던 Bernward의 주교 서품식 때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십자가의 일부 조각을 성물로 보내주었다. 1010년에는 미하엘리스 교회의 초석이 놓여졌고, 1022년에 Bernward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천사 미카엘과 전능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되살아난 숭고한 구원의 십자가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교회를 축성(祝聖)했다. 십자가 제단과 성유물로 받아들여진 이른바 Bernward의 십자가는 (현재 대성당 박물관에 보관)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 Bernward는 1022년에 사망한 뒤에 크립타(교회 지하에 위치한 무덤)에 묻혔다. 그를 성인으로 기리는 시성식에 (1192년) 앞서 12세기 중반부터 이미 교회의 시설과 장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실시되었다. (천사들 조각이 새겨진 성단 칸막이 설치, 조각상 설치, 기둥 머리 부분의 교체, 나무로 된 천장에 그려진 벽화)

1542년에 성 미하엘리스 교회는 개신교 교구 교회가 되었지만 베네딕트 수도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크립타에서 수도자들은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시간 전례)를 드렸다. 크립타는 오늘날까지도 카톨릭 교구에 속해 있다. 성 미하엘리스 교회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존하는 64개의 독일 교회 중 하나이다.

베네딕트 수도원은 1803년에 세속화 과정에서 해체되었다. 미하엘리스 교회는 1809년에 문을 닫고 건초와 짚을 쌓아두는 창고로 이용되었다. 이후에는 불링장으로, 1827년에는 수도원 건물에 위치한 정신병원 환자들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다. 개신교단에서는 1844년에 무너져 가는 미하엘리스 교회를 정상화하였다. 1855/57년 1907/10년에는 광범위한 보수작업을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성 미하엘리스 교회는 붕괴 직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43년에는 나치의 교육기관이 수도원 건물로 이주하게 되면서 470명의 환자들이 여러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살해되었다. 1945년 3월 22일에 힐데스하임에 가해진 대대적인 폭격 때 교회는 전소되었다. 1942/43년에는 그리스도의 가계도가 그려진 나무 천장이 제거되었고, 존재하던 성단 칸막이도 벽돌로 막혀졌다. 1945년에 복원이 시작되어 1960년에 완공되었다. 이때 Bernward 시기에 만들어졌던 최초의 건축물도 전반적으로 복구되었다.

건물의 외관

성 미하엘리스 교회는 그리스식 이중 십자가 형태의 바실리카 양식으로 만들어졌고, 두개의 익당(십자형 교회의 좌우 날개 부분, 트랜sept)과 서쪽과 동쪽에 각각 성단이 있다. 교회의 본당과 익당이 만나는 두 개의 교차지점에는 육중한 첨탑이 들어서 있고, 총 4개의 계단 첨탑이 익당 쪽에 세워져 있다. 건축 구조상 크립타가 있는 서쪽 성단이 동쪽 성단과 비교해서 더 강조되어 있다.

내부 공간

미하엘리스 교회의 평면은 의미 있는 숫자인 3x3 정방형에서 (3량식 본당과 익당) 발전했다. 숫자 3은 삼위일체를 나타내며, 숫자 9는 중세시대의 천사들의 계급의 숫자를 의미한다. 모든 익당의 연결 지점을 갖고 있는 발코니는 천사가 새겨진 8개의 제단 위에 있었다.

대천사 미카엘을 위한 9번째 제단은 서쪽의 제단실 뒤쪽의 회랑 위에 세워져 있었다. 본당의 12개의 기둥은 기독교를 떠받치는 12명의 사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적용된 숫자의 상징은 교회 내의 세부적인 곳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크립타

Bernward는 아치형 천장의 회랑이 있는 3랑식 서쪽 크립타에 매장되었다. 특별한 문양이 없는 원본 석조관은 화염 사이에 있는 아홉 천사들의 조각으로 치장된 관 뚜껑으로 덮여져 있다. 바로 그 위에는 오늘날 제단으로 사용되는 묘석이 있으며, 이 묘석에는 십자가를 비롯한 여러 상징들 (신의 어린 양과 복음서 저자들의 상징)이 함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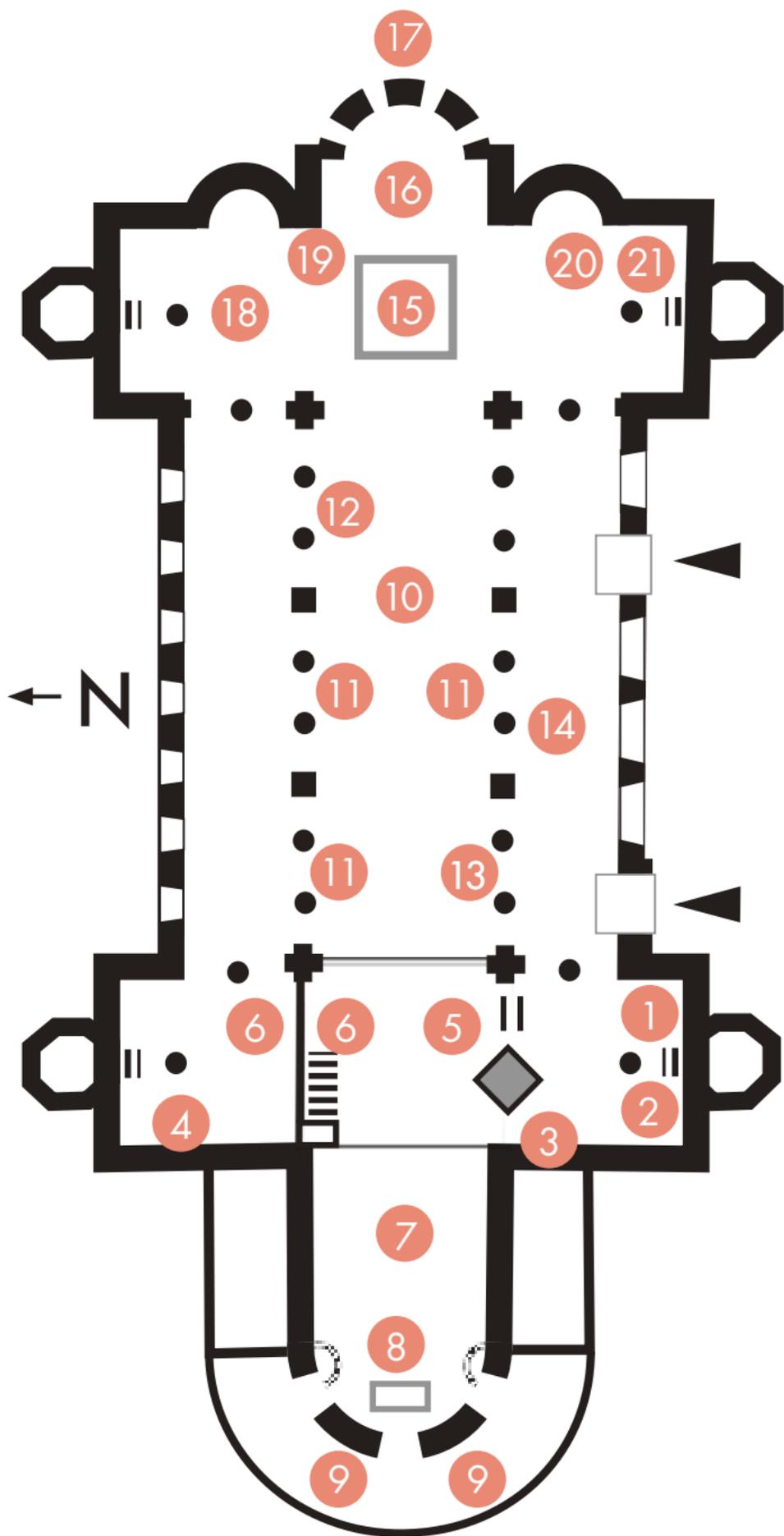
성 마하엘리스 교회에서 카톨릭 구역에 속한 크립타로 가는 입구는 종교 개혁 시기에 막혔다. 1978년에 이르러서야 남쪽 입구가, 2006년에는 북쪽 입구가 다시 개방되었고 교회와 크립타가 전체적으로 다시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림이 그려진 나무 천장

마하엘리스 교회의 아주 뛰어난 예술 작품은 바로 13세기 전반에 그려진 천장 벽화이다. 이 그림은 그리스도의 가계도를 나타내고 있다. 천장의 중앙에는 낙원의 아담과 이브, 이새, 다윗 왕,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마리아 그리고 왕좌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그려져 있다. 오른쪽 모서리에는 선지자들이, 원형 테두리 안에는 예수님의 조상들이 보인다. 낙원 그림에는 낙원의 강을 상징하는 여러 장치들이 그려져 있다. 그리스도 그림 주변에는 대천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모서리 부분에는 4명의 복음서 저자들과 그들의 상징이 그려져 있다.

회랑

13세기 만들어진 회랑의 좌우 측면 부분은 밖에서만 볼 수 있다. (안뜰을 지나서 교회의 동쪽 입구를 통해서만 가능)



- 1 굴착작업 중에 발견된 초석이 놓여 있던 장소 (1010년)
- 2 교회의 재건과 보수를 지원한 유대계 미국인 후원자 B. R. Armour 를 위한 기념 명판
- 3 크립타와 Bernward의 무덤 (1022년) 으로 들어가는 입구
- 4 Bothmer 가문의 묘비명 (1625년)
- 5 오르간 (1999년, Gerald Woehl)
- 6 천사들 조각이 새겨진 석고 성단 칸막이 (1200년경)
- 7 Bernward의 묘석 (14세기)
- 8 후기 고딕 양식의 성모 마리아 제단 (1520년경)
- 9 천사가 새겨진 납 유리 창문 (1965년, Charles Crodel)
- 10 그림이 그려진 나무 천장 벽화 (13세기 전반기)
- 11 후기 낭만주의 양식의 기둥 머리 (1200년경)
- 12 2개의 Bernward 식 기둥 머리 (11세기 초반)
- 13 재건 당시 변형된 기둥 머리 (20세기 중반)
- 14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나타낸 석고 조각상 (1200년경)
- 15 쇠로 만든 제단, 설교단, 강대상 (2008년, Thomas Duttenhoefer)
- 16 쇠로 만든 그리스도 조각상 (2008년, Thomas Duttenhoefer)
- 17 콘크리트 유리 창문 (1966/71, Gerhard Hausmann)
- 18 청동 세례반 (1618년, Dietrich Mente 목사)
- 19 부활절을 기리는 초 받침대 (1978년, Heinz Heiber)
- 20 Bernward 흉상 (12세기 말, 원래는 서쪽 제단 바깥에 위치)
- 21 사암 칠판 (1200년경, 원래는 서쪽 제단 바깥에 위치)

펴낸이:

개신교-루터교 교구 성 미하엘리스 교회의 임원회

편집: 2016년 8월

출판: 2016년 8월

Web Edition: 2024

© Michaelisgemeinde Hildesheim